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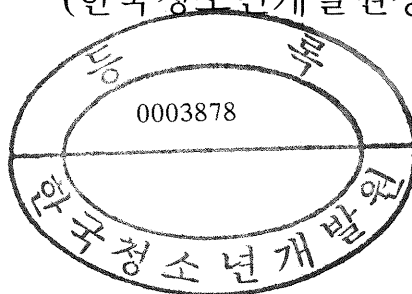
1996년도

1급 청소년 지도사 과정 연수교재

『21세기 우리 청소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조 영 승

(한국청소년개발원장)



한국청소년개발원

차 례

I. 한국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II. 敎育과 育成의 意味와 關係

한국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 목 차 〉

- I. 미래사회의 전망과 청소년육성
- II. 교육만능의 사회풍토와 우리 청소년
- III. 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조 영 승*

청소년은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들은 앞선 세대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간다. 청소년은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중있는 세대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경우 청소년인구는 남에 약 1,310만, 북에 약 780만, 해외에 약 160만 등 2,250만에 달하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자라느냐에 우리 겨레의 미래가 달려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 나가고,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해주는 일은 우리 사회 전체의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청소년개발원장

I. 미래사회의 전망과 청소년육성

1. 미래사회의 전망

다가올 21세기의 미래사회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사회가 전개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환경 보존을 추구하고 인간성 회복이 중시되는 인간화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증대되면서 천연자원이나 자본, 노동력보다는 정보·지식의 양과 질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¹⁾ 반면 이러한 정보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서구를 중심으로 정복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발달하여 자연환경의 파괴와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폐해를 수반하였으며, 이제 그 폐해가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에까지 이룸에 따라 정복적 자연관에 대비되는 유기적 자연관이 대두되고 향후의 사회에서는 자연과 도덕을 인류 최우선의 가치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민족적 또는 국가적으로 문명사적 전환점 앞에서 민주·복지·통일이라는 과제를 달성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발전을 추구하여 21세기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

2. 청소년육성의 기능

이와 같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육성이다. 이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 기성세대라면 미래사회, 즉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세대가 바로 현재의 청소년들이다. 이처

1)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서울:서울프레스, 1994), pp.61-64.

럼 미래사회가 청소년의 몫이라고 할 때, 청소년성장을 지원하는 기능과 정책은 이 두 가지 문명사적 흐름과 민족적 과제를 청소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 청소년들이 정보화사회를 선도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면 지식·기술·정보를 활용하는 지적 능력인 '지성'을 학교의 학업활동을 통하여 배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인간·환경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도덕적 능력인 '덕성'을 함양 해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사회적 기능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광의의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나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으로 그 기능이 구분된다. 청소년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이해의 방법에 의한 학업활동을 통하여 기능발달과 지성계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반면 청소년육성은 사회와 자연 속에 마련된 다양한 수련터전에서 수련거리를 중심으로 체험·숙달의 방법에 의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감성 개발과 덕성함양에 주력한다.

또한 청소년교육은 과목별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를 지도자로 하며 학령과 학력 기준에 따른 동질집단이 정해진 학제와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데 비해, 청소년육성은 철학적·역사적 지식과 인간적 감화력을 갖추거나 고도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지도자로 하며 연령과 생활이 다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의 복지증진, 환경개선, 생활개혁, 교류확대, 제도정비를 통해 청소년 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과 잠재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청소년교육의 근본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교육은 의무적 참여가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 제31조와 교육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교육청·학교에서 수행되는 데 반해, 청소년육성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기본적인 법령·시책을 바탕으로 국책기관에서 이론·정책을 개발·보급하고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

법 제34조와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육성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체육부·지방자치단체·청소년단체·청소년시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은 주된 활동의 공간, 교재, 방법, 목표, 지도자, 집단성격, 참여방법, 수행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양 기능은 균형을 이루어 상호보완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학교교육에서 계발된 지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육성 활동에 참여하여 충분한 덕성을 함양하였을 때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의비교

	청 소 년 교 육	청 소 년 육 성
장 소	학 교	사회와 자연속의 수련터전
교 재	교 과 서	수련거리
방 법	학업활동(학습·이해)	수련활동(체험·숙달)
목 표	지성계발	덕성함양
지 도 자	교 사(과목별 전문지식)	청소년지도자(철학적·역사적 지식, 인간적감화력, 고도로 숙련된 기능)
집단성격	연령과 학력기준에 따른 동질집단	연령과 생활이 다른 청소년
참여방법	의무적	자발적
근거법령	헌법 제31조, 교육법 등	헌법 제34조, 청소년기본법 등
수행체계	교육부, 교육청, 학교	문화체육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장 지원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계발하는 것만도 힘에 겨운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육성부문에서 덕목별 수련거리를 체계적으로 개발·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지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자연 속에서 체험과 감동을 통해 필요한 덕성을 스스로 내면화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선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두 기능인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이 상호보완적 균형을 유지

2) 체육청소년부, 『한국청소년기본계획』(서울:체육청소년부, 1991), pp.8-15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참조.

하면서 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때 비로소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청소년육성부문에서는 1991년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3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청소년기본법을 새로이 제정·시행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청소년육성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교육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II. 교육만능의 사회풍토와 우리청소년

1. 교육만능의 사회풍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차세대 양성을 위한 양대 기능인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은 그 균형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국민 대부분은 학교교육에만 전력하면 청소년의 성장이 저절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면 청소년 성장 지원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소년교육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의 학교교육은 성적 경쟁에 사로잡혀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생들은 학업활동 이외의 것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수업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입시의 중압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교육기생산업의 고객으로 희생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전전긍긍하며 사회부조리에 휩쓸리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학교

안팎의 온갖 압력과 질책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것을 학교에만 기대하고, 청소년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교육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질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만능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의 청소년성장에 있어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교육부문에서는 청소년의 68%가 넘는 학생청소년들을 시험공부에만 몰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시에 얽매인 교육 현실은 청소년육성을 경시하는 풍조와도 직결된다. 막상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학업의 중압감 때문에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할 마음도 잘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의 기형적 운영에 기인하여 청소년육성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학교를 나서면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갈 곳이나 할 거리, 그리고 원하는 활동을 도와줄 지도자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공급(수련거리, 수련터전, 지도자, 육성이론, 국민 인식도)이 창출되지 못한 채, 1,310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육성정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청소년의 5% 내외로 추산되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 규제라고 하는 청소년육성 과제의 일부에만 미시적·소극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서도 청소년육성은 최하위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국민들도 청소년관련 문제가 발생되면 잠시 동안 흥분할 뿐, 평소에는 청소년육성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지가 미약하고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 매우 인색하다. 이것이 바로 '육성경시의 풍조'이다.

교육편중과 육성취약의 악순환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우리 청소년들이 풍부한 잠재력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의욕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창조적 사고(知)가 결여되어 가고, 협동적(仁)이기보다는 이기적 태도가 심화되고, 진취적 기상(勇)이 위축되어 가는 총체적 나약상태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일부 문제청소년의 비행을 치유하는 일이 점점 어렵게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국민의 인성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한민족의 도덕적 정통성을 상실하고, 21세기에는 '물질적 방만, 정신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후진국으로 전락될

것이다.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집단화, 흉포화하고 연령이 점차 낮아지며
누범율이 높아지고 있어서³⁾ 이러한 반사회적 비행에 대한 처방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청소년의 비행보다 더 긴요한 것은 전체
청소년의 나약한 실상을 바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질서·부도덕·비인간적 행태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수많은 건축물들이 붕괴되거나 수명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
한다는 우려를 낳는 것은 무엇이 그 원인인가? 생활편의를 위해 대규모로
시설되는 도시가스가 폭발하여 인명을 해치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서 일어나
는 일인가? 물·공기·숲·토양 등 자연환경의 극심한 오염과 파괴의 주범
은 누구인가? 그것은 비행청소년들이 성장해서 만든 것 도 아니고 과학기술
의 발전이 미흡하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통
념에서 보통 수준으로 보이던 일반청소년들이 자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술·정보 등의 지적 능력, 지성의 힘을 자연과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활용하고 적용하려는 도덕적 능력, 즉 덕성의 결함에 뿌리를 두
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동시에 도덕적 기준에 대하여서도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귀중한 덕목들을 몸에 익혀 구체적인 사
고와 행위에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는 덕성의 기초를 완성하지 아니하면
성인이 된 후에는 올바른 도덕성을 배양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⁴⁾ 청소년교
육에 있어서도 개선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지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육성을 더 빠르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함으로써 교육과 육성의 균형을 회복하여 지성의 배양과 덕성의 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3)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5』(서울:문화체육부, 1995) pp.408-409.

4) John J. Corner, *Adolescence and Youth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권이중 역, 『청소년의 이해 : 변화하는 세계속의 청소년』(서울: 체육청소년부, 1992) pp.607-649, 특히 제13장 도덕적 발달과 가치관 참조.

2. 외국의 청소년육성운동 사례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던 서구사회의 사례들이다. 서구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학교중심의 청소년교육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폭주하는 지식·기술·정보의 올바른 전달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⁵⁾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와 자연 속으로 나아가 수련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대가 요청하는 덕목을 체험을 통해 내면화하는 준비를 동시에 해왔다. 미국의 경우 1861년 코네티컷주의 사립 구넨리(GUNNERY) 학교 교장이 창안한 ‘집시 여행’이라는 2주간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대대적인 호평을 받으며 수련활동의 보급이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수련거리·수련터전·지도자를 갖추고 1~3개월의 과정을 제공하는 크고 작은 수련시설이 사회와 대자연 속에 8,500개가 넘고 있다.⁶⁾ 독일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지식·기술교육 위주의 학교를 떠나 사회와 자연속에서 품성을 넓혀야 한다는 ‘청소년 도보여행(WANDER VOGEL)’이 시작되어 점차 독일 고유의 전통문화와 연결되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공동체사회에서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이후 대대적인 청소년운동(JUGEND BEWEGUNG)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범국민적인 ‘노동자운동’, ‘국민교육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독일 전체의 사회개혁을 이끌어 냈으며 오늘날 독일통일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음⁷⁾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러한 청소년 성장 지원기능의 불균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이 균형을 회복하고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의 조화로

5) Max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 Politik also Beruf*, 막스 베버 저,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직업으로서의 정치』(서울:문예출판사, 1994), pp.45-46.

6)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편, 『미국의 청소년제도』(서울:체육청소년부, 1992), pp.3-4.

7) 이민희, 『도야의 역사성』(*Zur Geschichtlichkeit der Bildung-Ein Versuch zur Rekonstruktion von Bildung in historisch-anthropologischer Perspektive*), 독일 베를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운 성장이라는 한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양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 함께 움직여야만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이 청소년육성을 활성화하여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의 균형을 시급히 회복하여야 한다.

III. 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거시적인 장기종합계획의 추진

청소년육성정책은 2,250여만에 달하는 한민족 전체 청소년의 현 실정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지속적·예방적 정책이어야 한다. 이 장기종합계획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상에 관한 철학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의 실천이 바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정립 여부는 한국의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가름할 것이다.

그간 있었던 여러 차례 교육개혁이 결국은 학교교육의 학제, 교재, 입시방법의 변경 등에 그치고만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크고 작은 십여 차례의 교육개혁이 있어 왔고 그중에서 신교육체제를 도입하려는 최근의 교육개혁에서는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의 상을 제시하면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지만⁸⁾, 결과적으로는 배움의 단계를 구분하는 학교교육의 학제, 배움의 단계별 수준을 의미하는 교과서의 내용과 종류, 단계별 진학방법을 정하는 시험제도를 복잡하게 변경해온 과거의 전철을 벗어나지 못한 채⁹⁾ 교육만능 풍토, 거대 입시장화 현상만을 촉진하

8)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서울:교육개혁위원회, 1995), p.20.

9) 초·중·고교 1천4백1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개혁 1년을 평가한 최근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현장교사들은 교육개혁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과외도 줄지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6. 10. 2 참조).

여 교육과 육성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면서 더욱 학교공부への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사학에서는 신교육체제 개혁에 앞서, 인간성교육을 위해 1994년 10월10일 ‘바른교육, 큰사람 만들기 위한 교육 선언’을 발표하고 ‘신명심보감’을 편찬하여 ‘현대사회와 인성’이라는 교양과정에서 가르치는 노력을 시작하였지만¹⁰⁾, 이는 어디까지나 ‘신명심보감’에 나오는 바람직한 많은 덕목들의 개념과 사례를 가르치는 지식교육의 본질적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덕목들이 내면화되어 자아실현의 덕성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체험·반복·숙달의 방법으로 과학적·심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련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복지증진, 환경개선, 생활개혁, 교류확대, 제도정비를 통해 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과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여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정책의 혁신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사회와 자연 속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이러한 수련활동을 통해 전체 청소년의 덕성을 함양하지 않고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폐륜행태,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일을 기대할 수 없다. 전체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24세를 기준으로 할 때 학생청소년(68%), 복무청소년(7%), 근로청소년(19%), 무직·미진학청소년(5%)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학생청소년은 가장 많은 인구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수련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학생청소년들이 학업활동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에도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청소년수련활동의 ‘틀’은 청소년육성부문에서 수련거리, 수련터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행정체계 등 수련활동 여건을 개선·확충하고 청소년교육부문에서 학생들에게 수

1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신명심보감』(서울:고려대학교, 1996).

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동기를 부여하는 근원적 교육개혁을 동시에 요청한다.

수련거리는 학부모와 청소년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수련거리 인증제를 통하여 청소년, 부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인증된 수련거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만 충실하면 일상생활이 학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 학교 교재내용 등 교육수준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재점검, 교수방법 등 지식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치밀한 재평가, 교육기생산업 등 교육주변환경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학생들을 ‘정신적 질곡’으로부터 풀어주어야 한다.

이밖에도 학교체재시간을 단축하여 일일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토요일 수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주말수련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겨울방학을 축소하고 여름방학을 12주로 대폭 확대하여 장기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 경험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평가해줌으로써 수련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5대 혁신을 이루려면 청소년육성부문에서 수련거리, 수련터전, 지도자 등 수련활동 여건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의 두 기능이 상호연계하여 방안을 연구하고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육성 합동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생 이외의 청소년들(34.5%)의 수련활동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정비

청소년수련활동의 혁신과 함께 전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환경·생활·교류 부문의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장기종합계획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일상 사회생활에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청소년 인권신장), 신체적·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보호 대책(어려운 청소년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일시적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철저하고 과감한 사회적 관용제도의 도입(비행청소년 선도 및 예방)이 필요하다. 이것이 청소년 복지증진 정책이다.

둘째, 사회 속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청소년 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유해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유형별 유해환경의 발생 및 파급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여 유해요인을 순화·제거하는 구체적 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집단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련활동과는 달리 군중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시행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 환경개선 대책이다.

셋째, 사회전반에 걸친 생활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생활태도 및 가치관 개선과 아울러, 미풍양속의 계승, 기성세대의 절제와 술선수범 등에 관한 실천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사회 전반의 생활개혁 추진이다.

넷째, 청소년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육성 장기종합계획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 청소년 교류확대 방안이다. 지역교류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개발된 수련거리와 수련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지역간 교류 경험을 증대시키고 세계인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화합, 인간관계 조절능력 배양, 민족적 긍지 함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산재한 교포청소년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방안과 남북청소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독일이 통일 이전부터 장기간 동서독 청소년의 이질성 극복에 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동서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통일에 대비해야 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이것이 청소년 교류확대 정책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청소년육성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관련 법령과 규칙의 합리적 조정과 시행방안, 그리고 정부의 청소년부문 예산확충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육성 사업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국민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간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출연을 적극 장려·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것이 청소년관련 제도 보강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교육과 육성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해서는 청소년육성부문이 각성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육성정책은 교육부문에서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을 기다리는 자세였다. 이제는 불행한 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대한 미시적, 규제적 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포함하여 전체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을 개발하는 거시적, 조장적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교육부문에서는 물론 청소년 자신, 학부모, 나아가서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자생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지원·청소년복지증진·청소년환경개선·청소년을 위한 사회 전반의 생활개혁·청소년교류확대·청소년관련제도 보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육성기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청소년교육의 바탕(infrastructure)이 되어 전반적으로 청소년성장지원기능을 정상화·활성화 할 수 있는 첩경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敎育과 育成의 意味와 關係

교육과 育成의 意味와 關係

- 靑少年 育成의 意味와 內容을 中心으로 -

曹 英 承※

〈 목 차 〉

- | | |
|-----------------------|------------------------------|
| I. 教育과 育成의 概念 | V. 靑少年 育成의 比較的 考察 |
| II. 우리 時代의 教育과 學校의 機能 | VI. 21세기를 맞는 教育과 育成 - 未來의 展望 |
| III. 育成의 時代的 必要性 | ■ 參考文獻 |
| IV. 靑少年과 育成 | |

I. 教育과 育成의 概念

우리는 어떠한 주제를 논하기 전에 그 주제에서 핵심이 되는 말들의 확실한 개념 定義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주제의 중심된 말들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정의되어 논의를 출발하면 결국 결론에 도달할 수 없고,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일은 우리가 주제 토론을 할때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논의 끝에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거나 논의 중에 서로의 의견 교환이 불이해로 진행되지 않을때 그 이유가 왕왕 논의에 관한 주요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와 定義가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은 토론을 위해서는 먼저 확실한 개

※ 한국청소년개발원장

념 정의와 이해가 전제로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개념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교육과 육성의 개념을 논하는 것도 예외는 아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교육과 육성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개념 정의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개별적으로 논하려는 교육과 육성 자체의 개념 정의에 관한 비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이란 뜻 자체가 원래 감각적이거나, 직관적 의식으로 부터 형성된 낱말의 여러 관념으로 부터 공통되는 일반적 表象이 思惟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본질에 있어서 원래 표상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념과는 달리 하나로 고정된 관념은 아닌 것이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역사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리 개개인은 생각하는 주체로서 각기 객체에 대한 표상을 달리 가질 수 있고 또 각 시대속에서 대상에 대한 일반화된 사유로서의 개념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달리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개념도 그의 정의에 있어서 절대성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교육과 육성의 개념도 따라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교육과 육성의 개념이 절대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은 교육과 육성의 관계를 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고정된 관념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가능성으로서 우리시대의 歷史性에 비추어 교육과 육성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postmodernism의 시대思潮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기존의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으로부터의 폐쇄적, 비진보적 혹은 때때로 폭력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서 우리시대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고정관념을 비판하여 새로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시대적으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교육과 육성의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21세기로 가는 현시점에서의 교육과 육성이 가지는 개념을 비교하기로 한다.

교육의 개념을 語源에서부터 논하자면 교육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중국의 고전인 『孟子』의 盡心편에 있는 君子三樂中一樂에 해당하는 “得天下英才而教育之三樂也”에서 볼 수 있다.¹⁾ 이는 東洋에서 인격의 완성체로 일컬

1) 이형행, 『교육학개론』(서울:양서원, 1988), p.11.

어지는 君子가 세상의 뛰어난 人才를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이 큰 즐거움 셋 가운데 하나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시대에 와서는 교육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들에게 즐겁기 보다는 고통스러운 일로, 하나의 직업 선택의 길로, 생존의 수단으로, 돈·명예·권력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역사속에서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결국 교육의 개념에 대한 절대성을 말할 수 없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말을 따로 떼어 분석하자면 ‘敎’는 먼저 배우다는 뜻을 가진 學과 같은 의미인 ‘孝’자의 부분과 가볍게 두들긴다는 뜻을 가진 ‘攴’자가 합쳐서 ‘敎’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²⁾ 배우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敎’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敎’는 이렇게 볼때 능동적·자율적 교육보다는 우리의 二次的 自然으로 말할 수 있는 문화와 사회의 내용들이 교육자로 부터 수동적으로 指導나 敎導가 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育’이란 말은 보다 우리들의 타고난 一次的 自然을 보살피고 단련하고 익숙케하여 성장하도록 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育’은 ‘敎’와 비교해서 인간의 生得的 자연을 마치 원예가가 화초를 잘 자랄 수 있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어 기르는 것 같아서 ‘敎’에 있어서와 같이 조각가가 돌을 조각하는 것 같은 수동적 입장에서의 학습자가 아니라 그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단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방향을 마련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한편 중국 古典인 『論語』에서 볼 것 같으면 聖賢인 孔子께서 “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 말함으로 “배우고 때에 따라 익히는 일 또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³⁾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孟子』에서는 “敎育”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면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만 말하여졌으나 『論語』에서 나타난 “學習”의 의미는 배우는 자의

2) 차경수, 『교육학개론』(서울:학연사, 1991), p.32.

3) 도광순 역주, 『新譯 論語』(서울:문예출판사, 1987), p.9, 오늘날의 교육에 대한 이해에서는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작용으로 말하여지고 있고 이들은 교육환경과 더불어 교육의 종합적 주체를 이루고 있다.

즐거움이 말해지면서 결국 교육과 학습 모두를 기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學習”의 의미에서도 배운다는 ‘學’은 가르침에 따르는 교육의 수동적 입장을 가지지만 익힌다는 ‘習’은 배운 것을 수련터에서 실제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스스로 行하여 실천한다는 교육의 능동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뒤에서 “敎育”과 “育成”의 개념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동양의 古典인 『孟子』와 『論語』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西洋에서의 개념형성은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이스의 “파이데이아”(paideia)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이데이아는 그리이스 교육과 陶冶의 프로그램에 관한 총괄적 개념인데 원래 “‘어린 아이’(pais)를 집중해서 돌본다”는 뜻을 가진 ‘paideuein’이란 동사에서 유래했다. 이후로 파이데이아는 ‘기술적 지식’에 해당하는 ‘areté’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주로 아테네의 소피스트들의 가르침을 의미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에 교육을 의미하는 “pedagogy”의 어원도 그 당시 어린이들의 개인교사 역할을 했던 노예를 가르키는 ‘paidagogos’와 관련되어 ‘집으로부터 어린아이를 훈련장의 지도자(주로 음악과 체육지도자)에게로 이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이 알려진 영어의 “education”은 라틴어의 ‘educare’에서 비롯되었는데 ‘밖으로’라는 의미의 ‘e-’와 ‘이끌어내다’라는 뜻의 ‘ducare’로 이루어진 말로 함께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독일의 “Erziehung”도 ‘힘써’라는 전철 ‘er-’와 ‘끌다’의 뜻을 지닌 ‘ziehen’이 합쳐진 ‘힘써 끌다’, 즉 ‘erziehen’이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비롯되었는데 대체로 어린이의 실천적 가능성을 교육자가 이끌어주는 의미들을 지니고 있어서 능동적인 자주적 교육의 의미보다는 강압적인 수동적 교육의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이란 개념의 정의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의 어원적 고찰을 東·西洋 안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고대에서 말했던 교육의 어원적 의미를 오늘날에 와서도 그대로 교육의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교육학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사실 고대 교육의 개념은 자연적인 범주 안에서 형성되었다. 말하자면 교육은 교육이 개념화되기 이전에 인간의 자연적

삶의 부분과 모습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었고⁴⁾ 따라서 교육은 인간들의 자연적 삶 안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대사회와 같이 합리화되고 계획화된 이익사회에서 이해되고 요구되는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育成의 개념에 대해論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많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육성이 그동안 교육과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져 왔거나 혹은 교육에 포함되는 부분개념으로 이해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즉, 육성의 개념은 교육의 개념이 이야기될 때 같은 의미로 말해지거나 교육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보충개념 정도로의 하위개념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육성의 개념은 우리가 그를 교육의 개념과 뚜렷이 구분지움으로서만이 그의 정의가 명료해질 수 있다. 교육은 우리가 정의할 때 체계적으로 그의 이상, 목적, 대상, 현상, 방법, 場, 시대, 교육적 상호관계 등을 고려해서 개념을 고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배우고’, ‘가르치고’, ‘기르고’, ‘돌본다’ 하는 것이 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내용이고 기르고, 돌보는 것은 육성의 주된 내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육성은 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넓은 의미로 해석했을 경우에 한하고 실제로 교육은 ‘敎’와 ‘育’으로 분리하여 ‘敎’는 위에서 언급한 인간에게 필요한 문화와 사회를 가르치고 배우는 즉, 실제적 의미로서의 교육의 모든 관계와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고, ‘育’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生得된 인간의 自然性を 잘 돌보고 길러서 자라게 한다는 育成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육성의 의미는 특히 J. J. Rousseau(1712-1778)의 교육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Rousseau의 교육사상은 育成의 근본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Rousseau는 일찌기 同시대의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를 가르치는 同시대 교육을 심각하게 비판한 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그의

4) 예를 들면 오인택 교수는 *paideia*의 어원을 *pais*(어린이)와 생태를 표시하는 접미어 *-euo*가 연결되어 “어린이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보고있다. 오인택, 『고대 그리스 교육사상』(서울:종로서적, 1994), p.51.

교육소설 『에밀』의 첫머리에서 “창조주 신의 손으로부터의 모든 것은 좋으나 인간의 손으로부터 모든 것이 악하게 되어 버린다”는 말과 함께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사회로부터 왜곡되고 변질된다고 보고 “自然人”을 그의 理想의 人間像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인의 의미는 미개하고 조악한 야만인이 아니다. 그는 인간을 순수한 善한 존재로 보았고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인간의 본성을 잘 돌보고, 기르며, 자라게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즉 우리가 위에서 말한 “育成”을 통해 자연인을 성장케 할 것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아동의 자주권을 주장한 최초의 교육자, 다시 말하면 참된 育成者였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과 육성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의 절대적 정의가 어렵다는 사실과 개념의 정의가 시대적으로 달리 정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육성의 개념은 광의의 교육개념에서 벗어나 구체적, 실제적인 교육의 개념으로부터 구별될 때 뚜렷한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대략 알게 되었다. 이제 교육과 육성의 관계는 아래에서 논해지는 이러한 교육과 육성의 개념이 뚜렷이 구분되는 과정에서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II. 우리 시대의 敎育과 學校의 기능

우리는 보통 한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술을 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六何原則의 조건을 따른다. 우리가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로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해 볼 때 교육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교육이 그의 개념과 교육학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삶의 존재 형태로 주어져 있다. 우리가 말하는 태교(胎敎)나 가정교육이나 어린아이들 사이의 상호교육적 관계도 그러한 자연적 현상을 잘 말해줄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 현상으로서의 교육에는 계획된 것이 없다. 그 교육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의 목적이요, 조물주의

계획에 따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형태가 자연적인 원시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넘어 가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연에 목적을 부여하고 자연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자연적 삶의 형태이던 교육에도 이제는 사회가 요구하는대로 교육이 이해되고 실천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들 이익사회는 서로 다른 각자의 의지와 의식을 가진 개체가 이룬 공동체이다.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의식의 표현과 행위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과 인간속에서 문화를 이루고 이러한 문화의 습득을 교육을 통해 배우고 전하고 그것을 토대로 나아가서 새로운 의식과 의지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 문화 속에서 교육을 이해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해는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六何原則의 조건에 따른 이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또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육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서로 다른 時空 속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과 집단들이 교육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 행하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우리 시대의 교육은 어떠한가? 또한 교육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기능은 오늘날 어떠한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육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시대의 문화에 관하여 直視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화란 우리의 정신이 호흡하고 있는 대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문화에는 인간의 타고난 자연성과 사회로부터의 온갖 규범들이 어우러져 한 시대의 사회적 총화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Max Weber의 표현대로 形而上學的 마법에 걸린 세계를 그의 이성으로 과학과 합리화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Kant는 마법에 걸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인간 理性에게 물었고, Hegel은 “인간의 이성 위에 세계를 세운다”는 기치를 드높였으며 마침내 이러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자만으로 계몽주의를 거쳐 소위 modernism으로 대표되는 20세기의 문화를 형성했던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우리는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부터의 결과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 필요가 있게 되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산업사회와 기계문명사회를 거치면서 인간은 실로

많은 변화를 급속히 경험하였다. 소위 ‘문명의 혜택’이라는 이름아래 우리는 그동안 자연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던 많은 불행을 극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인간승리’와 ‘자연정복’이라는 환호성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호성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식의 축적’이었다. *homo sapiens*인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본성적으로 알고자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의 이 알고자 하는 지식의 욕구가 神의 절대적 권위에 눌러 간혀 있다가 인본주의를 거치면서 자유로와지면서 마침내 F. Bacon(1561-1626)에 이르러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시대적 선언이 있게 된 것이다. Bacon이 말한 것이 그대로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지식이 곧 힘이 되었고, 이제 지식이 정보가 되고, 정보는 곧 새로운 힘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는 누가 먼저 지식과 정보를 결정하고 소유하느냐가 곧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여부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곧 지식의 문제가 바로 지배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⁵⁾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하나의 가치판단의 명제이며, 지식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정신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통털어서 과학을 ‘지식의 총체’로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사회를 과학화 사회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사회가 지식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임을 뜻한다는 말인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사회의 의식은 곧바로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지식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며 그 지식이 우리 개인에게, 미래의 인류사회에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연 우리는 축적된 과학적 지식의 교육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므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정신세계는 만족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그 과정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원래 지식의 총체인 과학의 이념은 진리의 추구에 있는 것이다. 철학이 고대로부터 형이상학적인 길을 통하여 진리를 추구해 왔다면 과학은 실증적, 경험적, 체계적인 길

5) J. F. Lyotard, Das Postmoderne Wissen(Böhlau, 1986), p.35.

을 통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그의 自目的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의 부패함과 함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아 버렸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아는 것의 즐거움으로부터 이제 알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되었고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풍요하게 한다는 것 보다는 제한된 물질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어 버린 것이다. 더욱 놀랍고 위험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일반 의식이 과거에는 수치스럽게 이야기되어 왔는데 이제는 모두 당연하고 엄연한 시대 가치로 수용되면서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오히려 낙오자라는 이름을 붙여 불명예화 하기에 이른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수단으로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무한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에게 맹목적인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우리시대의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돌아볼 때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와 체제속에서 갖는 학교의 기능이란 매우 비판적일 수 밖에 없다. 원래 학교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은 역사속에서 전수되는 문화속의 좋은 가치관과 규범, 제도, 행동양식들을 학생들에게 내면화(internalization)시켜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하며 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화(socialization)과정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의 실제적인 기능은 어떠한가? 우리는 인류가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평등의 시민사회로 발전하면서부터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公敎育의 출발은 이러한 교육의 이념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공교육은 이제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시대적,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탄생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알려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예나 지금이나 국가는 교육을 기능적으로, 다시 말해서 수단으로 생각하여 학교를 통해 국가가 바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사회의 관계에서 학교가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비판적으로 면밀히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모든 국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 학교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수요에 따른 공급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즉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는 ‘자격증명’

(qualification)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는 전문 고급인력을 등급과 수준에 따라 분류·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의 기능으로부터 학교교육이 전문적 직업인을 양성하는 소위 ‘熟練敎育’만을 강조하게 되어 全人敎育의 場으로서의 면모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둘째로 우리 시대의 학교는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그대로 再生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그의 ‘선택’(selection)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을 사회의 각 지위로 내 보내는데, 현대의 기술지상주의적 경제산업사회에서는 위의 자격증명의 기능과 연관하여 소위 ‘엘리트敎育’ 등을 통해 학교에서 계속적인 경쟁을 조장하여 상업주의 속에서 고등지식의 전문직을 만들어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지위의 계승 과정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많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함께 대다수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성세대와 학생들간에 불신감과 사회에 대한 냉소주의와 자포자기를 갖도록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로, 학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기능을 포함하여 국가와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려는 ‘정당화’(legitimation)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데올로기는 “기회 균등과 능력주의”다. 이 말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富 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념이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회 상층의 지배계층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명예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정당화의 도구로서 학교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학교와 사회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학자들의 입장이다. 즉 사회의 지배계층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간과 교육에게 환경이 가져다 주는 조건의 영향을 전혀 무시하거나 자연적 사실로 위장해서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개개인에 주어진 조건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 있으니 능력껏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라는 사실을 주입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그들이 말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부를 획득한 자들은 거의 극소수이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模範像으로 미화하고 이러한 예외적 사실을 일반적 사실로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로, 오늘날 학교의 중요한 또 다른 기능은 ‘통합’(integration) 기능이다. 機能主義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중에 하나는 ‘통합’(integration)이다. 기능주의자들은 사회를 사회의 각 부분 system들이 상호작용하여 기능하는 총체적 system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 부분 system들이 전체를 위하여 기능하여 안정을 꾀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학교 system의 총체적 사회 system에의 integration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국가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회전체의 현상태를(status quo)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가치관, 규범, 제도들을 비판없이 수용하고 따라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를 통한 integration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장 잘 드러낸 예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미 지금은 붕괴해버린 사회주의 국가나 몇몇 독재국가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구성원의 개인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안정만을 내세우며 알게 모르게 행하여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개개인의 다양한 관심과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달리 말하자면 Rousseau가 요구했던 “自然人”으로서의 인간을 부정하고 오직 “社會人”으로서,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전체를 위하여 획일적으로 기능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⁶⁾ 그러나 과연 국가와 사회가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가치관과 규범, 제도들을 우리 개개인이 내면화할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가가 문제이다. 기능주의의 맹점이 방법(how)과 효과만을 생각하고 원인(why)과 목적(what)의 문제를 무시하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그것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근본문제를 간과할

6) Rousseau는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라는 개념 아래 그의 정치교육론을 말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市民’됨을 강조했으나 그가 주장한 자연인과 사회인의 이상적 조화의 모델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I. Fetscher, Rousseaus politische Philosophie(Frankfurt am Main, 1981), p.58 참고.

수 없는 것이다. 예를들면 우리나라가 소위 “세계화”를 국가사회적 표호로 알리고 있지만 과연 세계화를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세계화가 우리 개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세계화를 위한 준비에서 조기 영어교육이 즉, 마음껏 가정과 자연과의 교감속에서 즐겁고 밝게 자라야할 아이들이 원인도 모르면서 영어 과외다, 학원이다 하고 쫓겨다니면서 心身을 傷하게 되는 것이 과연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일일까하는 문제제기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무가치한 지식은 도리어 우리를 해하는 毒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지식을 쌓고도 걱정이 많은 자 보다는 지식이 없어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배움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 배움으로부터의 지식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 타인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 배움을 통하여 참된 것을 아는 또 하나의 “일(Arbeit)로부터의 소외”인 것이다.⁷⁾ 나의 지식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될 수 뿐이 없을 때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인 것이다. 孔子도 일찌기 그의 『論語』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있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즐기고 있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者 好之者 不如樂之者)”⁸⁾고 했으며 이와 더불어 옛 성현은 그의 예지로 “옛날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했고, 오늘날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고 말한 것이다.⁹⁾ 孔子(B.C 552-479)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전인것을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사실이다. 성현(聖賢) 孔子의 위의 말을 되새겨볼 때 오늘날의 우리 교육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큰것이다.

7) K.Marx는 그의 疎外論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먼저 그의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다음으로 그의 노동으로부터, 노동의 임금으로부터, 마침내는 노동자들 사이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일이란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 도광순 역주, 전게서, p.85.

9) 상게서, p.212.

Ⅲ. 育成의 시대적 필요성

육성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育成과 敎育의 개념을 고찰하면서 말했던 것과 같이 원래 광의의 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교육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가르치고(敎)’, ‘기르고(育)’, ‘자라게’ 하고, ‘全人格體를 이루고(成)’, ‘배우고(學)’, ‘익히는(習)’ 그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育成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대의 교육이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지식을 쌓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지식의 참된 목적을 망각하여 쌓아온 그 지식은 결국 그를 통해 이루어 놓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국가·사회에 해(害)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仁」을 중심사상으로 말하는 孔子는 일찌기 “지(知)가 미치더라도 인(仁)이 그것을 지킬 수 없으면 비록 그것을 얻더라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 (知及之 仁不能守之 雖得之 必失之)” 라고¹⁰⁾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분업화」이다. 이 말은 우리 시대의 교육이 敎育과 育成의 두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는 일도 포기할 수 없고 이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버릴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교육과 육성의 개념을論할 때 좁은 의미의 교육에서 교육을 二次的 自然인 文化的·社會的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수동적 의미의 「敎育」과 인간의 一次的 自然인 감성·정서·신체 등의 生得的 면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길러주는 교육의 능동적 의미의 「育成」으로 나누었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全人敎育”의 모순된 과제의 해결을 위한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이를 分化하여 개념화하고 실천·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分化된 「敎育」과 「育成」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큰 의미로 바른 교육을 위한 상호보완의 관계

10) 상계서, pp.236-237.

로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때 知·德·體의 조화된 全人教育을 위해 敎育은 學校內에서 사회화(socialization)에 필요한 지식과 지식들의 理想에 관해서 배우고, 育成은 學校 밖의 生活圈과 自然圈 속에서 心身을 실천적으로 수련하여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결국 자신에게 毒이 되는 개인만의 영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국가와 이웃을 위하여 善하게 실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식 자체와 인간, 자연, 국가가 모두 自目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 육성의 分化를 통하여 오늘날 학교교육이 가지는 과중을 덜고 교육과 육성의 시간을 분화·배당함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학교 內에만 붙들어 두지 않고 실천적 삶과 自然 속에서 교육의 本然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배움의 터를 근원적으로 公的인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제도화된 학교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넓은 自然 속에서, 그야말로 여가를 즐기는 것과 같이¹¹⁾ 즐거울 수 있도록 주로 知識교육은 학교에서, 그리고 德性和 신체의 心身修鍊은 육성의 터전인 생활과 자연 속에서 분화되어 가르치고, 배우고, 익힘으로써 知·德·體의 조화된 인격체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한 참된 의미의 교육을 받은 자들로부터 우리는 건전한 미래 사회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찌기 율곡 선생님이 그의 「聖學輯要」에서 “修己工夫 有知有行知以明善 行以誠身 今取舍知行而言者 著干首”라 하여 몸을 닦는 공부에는 지식을 넓히는 것과 行하는 것이 있음을 말하면서 지식은 착한 것을 밝히는 것이고, 行하는 것은 몸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지식과 行하는 것을 종합하는 것을 “修己治人”이라 하여 理想的인 인간의 형성으로 말씀하셨다.

12)

우리는 우리시대에 와서 이렇게 「敎育과 育成의 分化」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기실 예전에는 동·서양 속에서 이러한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이 敎育과 育成의 의미가 함께 생각되어 동시에 행하여진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 육성의 상호조화된 내용은 B.C.

11) 원래 학교의 영어인 school의 어원은 희랍어로 ‘*schole*’로 ‘여가’를 의미하였다.

12) 손인수, 『율곡의 교육사상』 (서울:박영문고, 1986), p.78.

375년 경에 쓰여진 Platon(B.C.427-347)의 『국가』(*politeia*)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古今을 살펴볼 때 가장 뛰어난 대표적 교육철학적 大作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서 Platon은 먼저 정의로운 국가는 오직 정의로운 시민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고, 또한 오직 정의로운 국가에서 정의로운 덕성을 갖춘 개체가 형성되어 그의 삶에 대한 충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상적 국가와 개체의 형성에 관한 대전제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질서는 교육에 달려 있고, 반대로 교육은 정치 질서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결국 그는 『국가』에서 ‘충만한 삶’(eudamonie)을¹³⁾ 가르치면서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국가 공동체에서 사는 정의로운 인간의 삶을 말했던 것이다. Platon은 시민을 국가 전체의 물질적 충족을 위한 ‘생산업의 계급’과 군인, 경찰, 관리의 임무를 가진 ‘보호계급’, 그리고 哲人이 이끄는 ‘지배계급’으로 엄격히 나누어 각기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여야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 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특히 그는 인간의 영혼을 ‘慾望’과 ‘勇猛’과 ‘理性’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¹⁴⁾ 위의 계급들에게 각 부분을 해당시켰다. 또한 각 부분들에게 고유의 德性を 부여했는데 ‘욕망’에게는 욕구들을 자제하는 ‘절제’(sophrosyne)의 덕을 모든 계급에게 요구했고 주로 ‘보호계급’에게는 ‘용맹’의 부분에 ‘용기’(andreia)를, 그리고 ‘이성’의 부분에는 ‘지혜’(sophia)를 부여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영혼과 국가의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지식(episteme)을 의미했는데 결국 이 세부분의 덕성들이 잘 함께 지켜질 때 ‘正義’(dikaiosyne)의 덕성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였다.¹⁵⁾ 우리는 여기서 Platon의 4대 德目중 용기와 절제는 지식교육적인 오늘날의 학교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덕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Platon이 말하는 ‘지혜’의 덕목도 ‘정의를 위한 결정의 지식’을 의미해서 오늘날의 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종합적 완성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는

13) Platon, 국가, 352d, 420b 이하 참고, 「세계의 대사상」 전집(서울:휘문출판사, 1972), p.81, p.177.

14) 상계서, 437b 이하, 580c 이하 참고.

15) 오인탁, 전계서, p.205.

더욱 더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따라서 육성의 시대적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가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Platon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의 덕목을 가진 자로 ‘절제’, ‘용기’, ‘정의’를 전제로 갖추어야 할 것을 말하였으며¹⁶⁾ 이를 그가 세운 아카데미(akademeia)¹⁷⁾에서 주요 교육내용으로 삼았는데 이는 그 당시에는 이미 교육과 육성이 함께 가르쳐져 知·德·體가 조화를 이루어 全人的 인간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知·德·體가 잘 조화된, 다시 말해서 교육과 육성이 잘 조화된 것을 이상으로 하는 서양의 교육적 전통은 중세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특히 계몽주의에 와서 꽃을 피운 독일의 「陶冶」(Bildung)의 개념에서 그의 맥을 찾아 볼 수가 있다. 陶冶는 원래 어원적으로 ‘bilden’(形成하다), ‘Bild’(像)과 관련되어 있으며 18세기 중엽 이후로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全人格의 理想的 人間像을 추구하고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해 왔다. 우리에게 는 도자기를 굽고 쇠를 풀무질하여 주물하듯이 인간의 心身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陶冶」로 번역되고 있지만 Bildung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知·德·體가 잘 조화된 理想的 인간을 형성하는 부단한 과정으로 20세기 초반까지 독일어권에서 교육을 대표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일에서도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Erziehung”이란 또 다른 교육의 의미가 점차 교육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말은 영어권에서 말하는 education의 의미로 직접 번역될 수 있는데 ‘er-’(힘써)와 ‘ziehen’(끌다)라는 말이 합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교육을 의미하는 Bildung과는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 이 “Erziehung”은 요즘에 와서 글자 그대로 학생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는 교육, 다시 말해서 현재의 교육의 개념을 대표하는 사회화(socialization)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뜻하고 있어 오늘날에 와서는

16) Platon, 전제서, 487a, 490c(243쪽) 참고.

17) 당시의 아카데미는 오늘날의 연구단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그의 답을 찾는 대화를 통한 변증법(dialectic)으로 哲人이 되기 위한 수련의 모임이었다. 주로 위에서 말한 4대 德目を 익히는 장소였고 입학조건으로는 이미 예전부터 전하여온 paideia로 체조와 음악 그리고 작시(作詩), 수학(數學)을 익힌 것을 전제로 했다.

陶冶의 개념을 밀어내고 교육을 뜻하는 대표적인 독일어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만을 습득케 하는 Erziehung이 全人教育의 의미를 대표하는 Bildung의 개념을 잊혀져 가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대표적인 「人間學」 연구자인 막스 쉐러(Max Scheler, 1874-1928)는 이와 관련해서 그의 글 「知識의 형태들과 陶冶」(1925)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 질문을 제기했다 : “첫째, 무엇이 정말 ‘陶冶’의 본질인가? 둘째, ‘陶冶’는 정말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세째, 어떤 종류와 형태들의 지식과 인식이 인간을 ‘陶冶된 인간’으로 되게 하는 과정의 조건과 결정요소가 되는가?”¹⁸⁾ 이와 관련해서 그는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陶冶는 지식과 체험의 범주가 아니라 ‘존재의 범주’로서¹⁹⁾, 즉 ‘인간으로서의 도야’를 말하며, 도야의 본질은 “모든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행하여지는 영원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화(Humanisierung)이며 동시에 역사 속에서 결코 쉬임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Menschenwerdung)”으로²⁰⁾ 말하였다. 두번째 질문인 ‘도야’의 방법, 즉 ‘인간됨’의 길에 관한 물음에 관해서는 그는 그에 대한 답을 단지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정의에서만 찾지 않았다. 그는 먼저 모든 자연 속에 있는 삶들의 욕구 충동을 인간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신체적 욕구 충동과 정신과의 상호 정진의 활력을 통해서 즉, 변증법의 습에 이르는 ‘인간 충동의 정신화·理想化’를 인간 스스로가 자유로운 개체적 행위를 함으로서 스스로 陶冶하는 길임을 말하였다. 21) 따라서 그는 인간의 生得的 自然과 精神이 잘 조화된 理想的 방법이 바로 陶冶의 방법임을 말하면서 陶冶는 인간 형성의 수단이 아니라 최종 목적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다 : “陶冶는 무엇인가를 위한, 직업이나 전공, 모든 종류의 능력을 증명 받기하기 위한 熟練教育이 아니고 또한 그러한 숙

18) M.Scheler, Die Formen des Wissens und die Bildung, in : M.Scheler, Späte Schriften, Gesammelte Werke Bd.9,(Bern und München, 1976), p.89.

19) 상계서, p.90.

20) 상계서, p.97.

21) 상계서, p.101 이하 참고.

련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무엇인가’에의 숙련교육 모두가 (···) 잘 형성된 인간 자체를 위하는 것이다”²²⁾ 라고 하면서 이미 그당시 교육의 흐름이 참된 知·德·體가 조화된 인간을 형성하는 陶冶에서 직업을 겨냥한 지식만을 쌓는 숙련교육(Aus-bildung)으로 바뀌어져 교육의 主客이 전도되어 가는 것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는 역시 知·德·體의 조화로운 성장을 그 이념으로 하는 「育成」의 이념이 도야(Bildung)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 「陶冶的 育成」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물음인 ‘도야된 인간’을 위한 지식의 형태들에 대한 답으로 Scheler는 지식들을 크게 한 개체의 형성과 완성을 돕는 ‘도야의 지식’과 ‘종교적인 계시의 지식’ 그리고 지배의 지식 또는 능력 증명의 지식을 말하는 ‘實證的 과학 지식’으로 나누었는데 그는 일방적으로 지배와 능력 위주의 기능적인 ‘실증적 과학 지식’만을 비판하지 않고 동시에 ‘도야와 계시의 지식’이 지나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명상적·이론적 성향도 경계하면서 상호 세 지식의 비교와 보완적 관계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다.²³⁾ 이렇게 Scheler가 ‘실증적 과학 지식’을 무시하지 않은 것은 바로 A.Comtes가 이미 18세기에 인간지식의 발전단계가 고대와 중세의 神學的·神話的 지식에서 중세 이후의 形而上學的 지식을 거쳐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견을 확인한 것 뿐만 아니라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現實과 理想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實證的 지식만을 강요하고 그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거부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 자체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수용 또한 이상적 삶을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21세기로 가는 우리 사회가 정보·지식사회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 또한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Platon이나 Scheler가 말한 것 같이 ‘절제’, ‘용

22) 상계서, p.103.

23) 상계서, pp.115-116.

기', '지혜', '정의'의 덕목과 '인간됨을 위한 도야'를 위한 배움의 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育成」인 것이다. 우리 시대의 소위 “학문”(Wissenschaft)을 통해서도 그 학문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이웃과 민족과 세계인류를 위해서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됨'을 위한 陶冶의 본질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育成」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확립하고 계몽시켜야 할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Max Weber(1864-1920)도 그의 글 「직업으로서의 학문」(1919)에서 “학문은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과 사실 관계의 인식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직업」이지, 구원재(救援財)와 계시를 주는 예언자와 예언자로부터 받는 은총의 선물이 아니며 또한 세계의 의미에 대한 현인(賢人)과 철학자의 반성의 일부분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 상황의 불가피한 소여(所與)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충실한 한에서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²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의 학문은 과거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기능이 아니라 Scheler가 비판했던, 바로 직업을 위한 지식, 학문임을 분명히 말하고 따라서 오늘날의 학교는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직업을 위한 지식을 다루는 것이 불가피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서 우리는 育成의 시대적 필요성을 더욱 가질 수 있는 것이다.²⁵⁾

우리는 이제 더이상 「育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없다. 육성이 교육에서 분화되고 오늘의 교육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육성에 대한 새로운 창조적 인식을 통해 확립하고 계몽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만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졌다면 바로 다름아닌 역사의 필연과 당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육성의 역사적 필연과 당위를 토대로 육성의 내용을 확립하고 개발하여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24) M. Weber,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서울:문예출판사, 1994), p.51.

25) 베버는 학교의 강단에 선 교사나 교수도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오히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계서, p.46.

IV. 청소년과 育成

오늘날 우리는 平生敎育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敎育學 내에서도 平生敎育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날로 많아지고 있다. 평생敎育은 원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의미로는 우리 사회에서의 敎育의 확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태아敎育부터 시작해서 노인敎育까지 그야말로 평생敎育이 행해지고 있는 시대이다. 삶은 敎育의 연장이라고 할만큼 우리는 敎育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敎育의 양적 팽창이 진정 우리에게 敎育의 즐거움을 주는가? 敎育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조기敎育이다, 입시敎育이다 해서 학교 입학 전부터 즐거움이 있는 敎育을 받아본 적이 없다. 졸업 후에도 직장에서 끊임없이 진급을 위한 시험과 敎育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敎育의 확산으로부터 우리는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로 가득 찬, 강요된 敎育밖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이제 정보화 사회를 맞아서 男女老少 누구나가 컴퓨터 敎育을 받지 못하면 21세기에는 존재의 위협조차 가지게 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차별한 敎育의 범람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있는 '인간됨의 삶'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건전한 이웃사회와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인의 화합과 지구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국가사회적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 그 중대한 정책은 틀에 박힌 청소년의 학교 敎育에 대응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장기적, 예방적, 지속적, 현실적 정책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아닌 「靑少年育成政策」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며,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나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는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며, 무슨 꿈이 있으며, 왜 방황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하고 그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청소년육성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해방이후 지금까지 대략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⁶⁾ 먼저 기초단계는 해방이후부터 1964년 구성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1977년 8월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바뀔 때까지의 32년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청소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부처간의 정책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1964년 대통령령으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규정이 공포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법령은 미성년자 보호법(1961.12.13)과 아동복지법(1962.12.30)이었고 이에 따라, 실제적인 청소년 정책의 수행은 주로 청소년들의 비행과 관련된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청소년정책의 체계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단계로서의 의의는 지니고 있으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이 주로 규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들의 全人的 성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는 제2기는 1977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바뀌면서 그 운영업무도 내무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총리실의 조정·통제기능이 강화된 1985년 1월까지로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높아진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청소년대책 실무위원회가 설치 되었으며, 전국의 읍·면·동까지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법령은 1962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아동복지법(1981.4.13)인데 적용대상을 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 의미 밖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역시 이 시기에도 量的인 제도의 확충 이외에 전체적으로 비행청소년을 보호·감시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부 지도자나 국민들의 인식도가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정책수행에 관한 이념적·이론적 연구와 개발의 不在, 이를 위한 전문기

26) 오인성, “청소년 행정의 변천과 발전방향”, 「청소년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광복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pp.17 이하.

관과 인력의 모자람, 그리고 재원의 부족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기는 청소년대책위원회의 간사기관이 문교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총리실의 조정통제 기능이 강화된 1985년 1월부터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설치되기 직전인 1988년 6월까지의 확대단계로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업의 전체적 특징은 새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청소년육성법(1987.11.28)에 근거하여 以前의 事後 대책적인 정책에서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예방적 정책으로 그 내용이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에 청소년 전담부서로 청소년담당 심의관을 신설하기는 했으나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청소년정책의 발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제4기는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설치된 1988년 6월부터 현재까지를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그동안의 청소년육성 업무가 그 의미·중요성·내용등이 정리되지 않고 여러 부처를 옮겨 다니며 행하여져 왔고, 업무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로, 청소년의 60여% 이상이 학생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문교부로, 또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는 등 표류하던 것을 1990년대 초부터 바로 잡아 그의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로 실제적인 청소년육성의 업무가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행정의 전달체계로서 전국의 시·도에 청소년과가 생겼고 무엇보다도 전체 청소년을 對象으로한 장기적 종합계획(10개년계획)인 「청소년기본계획」(1991.6.27)이 수립되어 이를 뒷받침하는 「청소년기본법」이 입법화되고(1991. 12.17공포) 시행령이 제정·공포 되어(1992.12.31)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청소년정책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 발전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²⁷⁾은 “21세기 주인공 - 우리청소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제목 아래 「靑少年育成靑書」(1995.12.)를 만들어서 미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靑少年像을 위하여 청소년의 현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육성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주요 실천과제를 연구·개발함으로서 청소년육성의 획

27)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89년 청소년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청소년기본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으로 전면 개편하여 출범한 국책기관이면서도 민간의 청소년육성사업을 지원, 지도, 분석, 평가하는 청소년육성의 민간중추기구이다.

기적인 초석을 마련했다. 그의 골간을 말하자면 청소년육성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의 합동개혁, 청소년수련활동 여건 혁신, 청소년복지·환경·생활·교류 영역의 구체적 접근, 청소년관련 법령·제도·기구의 전반적 재검토, 소요재원의 정부예산 증액과 민간화 실현 등이다.

28)

그러면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者를 말한다”²⁹⁾고 명시되어 있다. 영어의 청소년을 뜻하는 ‘adolescent’의 어원인 라틴어 *adolescence*는 ‘성장하다’, ‘성숙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와 성년기를 이어주는 인생의 중추적 시기로 우리 개개인은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이 시기가 우리 전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하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우선 신체의 성숙과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性과 理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고 자율적 사고와 행동이 있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환경으로부터 습득된 지식들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그를 통해 지적 성장이 활발해 지는 시기인 동시에, 도덕적 가치판단이 형성되어서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과 의무를 의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이 시기에 익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知·德·體가 조화된 인간으로서의 필요한 내용을 이 시기에 배우고 익혀서 성숙한 全人格體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 한 개인이나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 韓民族의 청소년은 현재 남한에 1,310만, 북한에 780만, 해외에 160만 등 총 2,250만명에 달하고 있다. 남한의 청소년 대부분은 위에서 말한 知·德·體가 조화된 인간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교육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대학입시를 겨냥해서

28)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업무현황보고서(1996.1.17), p.6.

29) 문화체육부, 『청소년 기본법령집』(1995.4.), p.3.

지나친 성적 경쟁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가장 감수성이 풍부하고 혈기가 왕성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소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핵가족화된 직업부모들에게서도 위로와 애정을 받지 못하며, 퇴폐적 상업주의에 물들은 대중매체로 부터도 올바르게 先導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자극을 받아 그의 귀중한 시기를 충동적, 음성적으로 보내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교육에 육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³⁰⁾

앞에서 우리가 교육을 교육과 육성으로 分化했듯이 교육과 육성은 상호 균형과 보완의 관계이다.³¹⁾ 청소년에 있어서의 교육과 육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헌법 제 31조와 교육법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 교육은 국가의 학교제도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따른 학습을 통해 기능 발달과 지성의 계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헌법 제34조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 육성은 생활과 자연속에 준비된 다양한 수련터전에서 수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련활동을 통해 心身을 닦아 감성개발과 덕성함양, 체력단련에 주력하고 있다.³²⁾ 또한 청소년 교육은 과목별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를 통해 사회화(socialization)를 위한 지식과 규범, 행동양식을 배우

30)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인력구성에서부터 취급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교육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개혁 작업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학제, 교육의 학과목, 입학시험제도 등 교육의 내용만을 다룸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었을 뿐 지식과 덕성의 균형성장, 다시 말하면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현상이다. ‘청소년육성’이 무관심속에 놓여 있고, 또한 ‘청소년교육’이 묵은 틀속에 갇혀있는 한 청소년의 바른 균형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 국가의 발전도 한계에 머물게 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줄고, “청소년육성의 이념”, 『1급 청소년지도사과정 연수교재 II』(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pp.3-4.

31)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의 본질적 차이와 관계>(별첨1)에 관한 도표와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의 상호관계>(별첨2)에 관한 도표 별첨자료 참고. 줄고, 전개논문, pp.14-16.

32) 한국청소년개발원, 『靑少年育成靑書(총론편)- 21세기 주인공 우리 청소년 어떻게 이끌 것인가?』(1995.12.) 참고.

는 반면에 청소년 육성의 지도자들은 知·德·體의 조화로운 소인격체의 형성에 관한 철학적·역사적 자각으로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수련활동을 통해 德性을 길러주며 체력을 단련시켜 知性, 感性, 德性, 體力이 잘 조화된 청소년을 키워 내는 것이다. 청소년 육성은 의무적인 교육과 달리 근본적으로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을 그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고 범사회적인 관심으로 민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다.³³⁾

이렇게 교육과 육성은 서로 그 본질을 달리 하면서도 상호 보완되고 균형을 이룰 때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데 가장 이상적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과 육성의 현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우리만큼 교육편중과 육성취약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입시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교에 얽매어 있고 모든 사고와 활동·의식이 성적에만 쏠려 있으며 그들에 대한 家庭과 사회의 평가도 주로 학교성적과 학력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서 육성을 통한 청소년 心身의 건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방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입시와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편중과 육성의 취약으로 풍부한 감수성과 잠재능력, 그리고 자기개발 욕구가 왕성한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창조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고 심한 경쟁 속에서 협동적이기 보다는 이기적 태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의를 지키고 불의와 싸우는 진취적 용기가 없어 총체적으로 나약한 청소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상황에 직면하여서 장차 21세기의 세계를 주도할 우리의 청소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정책이 시급하다.³⁴⁾ 첫째, 거시적인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육성정책은 2,250여만에 달하는 한민족 전체 청소년의 현 실정을 바탕으로하는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33) 우리에게는 아직 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못해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육성의 중요성으로 미루어보아 초·중·고등학생과 국민들의 육성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져서 자발적 참여를 원할 때까지 교육의 수업일수를 균형과 보완의 차원에서 육성에게 배당하여 의무적 제도 아래 자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면 육성의 학교 내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다.(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검토중).

34)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거서, p.7.

야 한다. 이 장기종합계획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상에 관한 철학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내용의 실천이 바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정립 여부는 한국의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가름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수련활동정책이 혁신되어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사회와 자연 속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이다. 이러한 수련활동을 통해 전체 청소년의 덕성을 함양하지 않고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한민족 전체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치유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을 기대할 수 없다. 전체청소년은 학생청소년(65.5%), 근로청소년(18.3%), 무직·미진학청소년(4.2%), 기타청소년(12.0%)으로 구성된다. 이중 학생청소년은 가장 많은 인구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수련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혁신과 육성정책의 혁신을 동시에 이루어 학생청소년들이 학업활동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에도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학생 이외의 청소년들(34.5%)의 수련활동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수련활동의 ‘틀’은 청소년육성부문에서 수련거리, 수련터전,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행정체계 등 수련활동 여건을 개선·확충하고 청소년교육 부문에서는 학생들에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동기를 부여하는 근원적 교육개혁을 동시에 요청한다. 셋째, 복지증진 대책, 환경개선 대책, 생활개혁 대책, 교류증진 대책, 제도정비와 재원확보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장기종합계획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일상 사회생활에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일시적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철저하고 과감한 사회적 관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 속에는 사회 속

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청소년 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일체의 사회환경과 그것의 생성 및 유통에 관련된 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유해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유형별 유해환경의 발생 및 파급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여 유해요인을 순화·제거하는 구체적 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활동과 심신단련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여 시행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장기종합계획은 사회전반에 걸친 생활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의 생활태도 및 가치관 개선과 아울러, 미풍양속의 계승, 기성세대의 절제와 술선수범 등에 관한 실천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종합계획에는 청소년 교류 확대 정책이 담겨져야 한다. 지역교류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개발된 수련거리와 수련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간 교류 경험을 증대시키고 세계인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화합, 인간관계 조절능력 배양, 민족적 긍지 함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산재한 교포청소년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방안과 남북청소년의 이질적 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독일이 통일 이전부터 장기간 동서독 청소년의 이질적 극복에 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동서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통일에 대비해야 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한편 장기종합계획에서는 330여종에 달하는 청소년관련 법령·규칙의 정비 방안과 정부의 청소년부문 예산확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육성 사업은 그 특성상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국민적인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까닭에 민간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출연을 적극 장려·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개선하여야 한다.

청소년교육부문에 있어서 교육개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은 학교교육의 학제, 교재, 입시방법의 변경에 그치고 만 한계를 직시하고, 이제 청소년육성부문에서 획기적 발전을 시도하여 교육과 육성의 균형과 조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창조적 사고, 협동적 정신, 진취적 기상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에만 집착해서는 숲을 볼 수 없듯이 ‘청소년 인구 중 3%에 해당하는 문제청소년에만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에 급급하여 전체청소년의 전반적인 병적 현상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를 청소년운동의 세번째 슬로건으로 삼아야 한다.³⁵⁾ 우리는 어느 사회이든 그 사회의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푸르게 잘 교육되고 육성될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 확신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우리 신라시대의 “花郎”제도를 들 수 있으며 서양에서는 독일의 “청소년 운동”(Jugendbewegung)을 들 수 있다.

V. 靑少年 育成의 比較적 考察

우리는 민족 사학자인 申采浩 선생님께서 그의 『조선상고사』 제8편에서 朝鮮이 조선되게 하여온 자는 花郎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화랑의 역사를 모르고 조선을 말하려는 것은 골을 빼고 그 사람의 정신을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임을 말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청소년 육성의 의미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조선을 조선되게 했던 화랑은 무엇인가? 어떻게 신라시대에 있었던 화랑이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한 국가를 국

35) 일본은 이러한 청소년육성을 사회교육이라는 이름아래에서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위에서 分化한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관계 속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청소년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그들도 학교교육과 그들이 말하는 사회교육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청소년육성의 절대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교육과 육성의 경계선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뿐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國立オリンピック記念靑少年総合センタ, 教育施設職員の手引き, 1995, pp.1-7.

가되게 만들 정도로 힘을 지녔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화랑과 화랑정신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의 청소년 육성과 비교 고찰하여 花郎思想과 제도를 청소년육성 운동의 근간으로 삼아서 ‘가치의 혼돈’, ‘物神主義’, ‘기술지상주의’, ‘경제산업주의’, ‘終末論’ 등의 비판적인 21세기로의 역사의 진행에 도전하는 한민족의 열로 기려야 하겠다.

화랑도의 기원에 관한 정확한 고증은 할 수 없으나 대체로 三韓 시기의 촌락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청소년조직으로 간주되는데 골품제도가 확립된 6세기에 접어들어 그 조직이 국가에 의해서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의 성격을 띠는 花郎徒로 개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고증이 가능한 화랑에 관한 기원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화랑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화랑도의 기원은 그 초기 조직인 원화제에서 찾아지는데 ‘원화(源花)’는 화랑의 기원이 되는 바로 앞의 제도로써 여성 수령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구성되어서 후에 화랑도의 모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좀더 ‘원화’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삼국유사』 3권에서 “인가의 낭자(娘子)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를 뽑아 받들어 원화를 삼고, 무리를 모으고 인물을 뽑아서 그들에게 효도·우애·충성·신의로써 가르쳤으니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커다란 방법이였다”라고 말하여서 이러한 청소년육성의 내용이 뒤에 오는 화랑제도에 계승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³⁷⁾ 원화제도가 화랑제도로 이어지는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후 다시 얼굴이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시키고 이름을 화랑이라고 하여 그를 받들게 하니 무리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혹은 도의로써 서로 연마하고(相磨以人道義)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기며(相悅以歌樂) 산수에서 즐겁게 놀아 멀리 가보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遊娛山水 無遠不至). 이로 인하여 그 사람됨이 바르지 못함과 바름을 알게 되어, 그중에 착한자를 가려 조정에 추천하였다.”³⁸⁾하고 『삼국사기』에서 말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서는 “이에 대왕은 영을 내

36) 이도학, “신라화랑도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검토”, 『신라화랑연구』(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13. 손인수 교수는 최남선의 『故事通』을 인용해서 上古朝鮮의 씨족사회로 부터 형성되는 종교적 敎團에서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손인수의, 한국교육사(서울:교육출판사, 1985), p.33.

37) 이도학, 전제논문, p.17.

38) 상계서, p.16.

려 원화를 여러 해동안 폐지하였다. 왕은 또한 나라를 흥륭(興隆) 시키는데는 반드시 풍월도(風月徒)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영을 내려 양가의 남자로서 덕행있는 자를 뽑아 (이름을)고쳐서 화랑(花郎)이라고 하였다”³⁹⁾라고 전해지고 있다.

화랑의 구성은 젊은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하였는데 총단장격인 국선화랑(國仙花郎) 밑에 각급단장 격인 花郎(또는 仙郎)이 있었고 그 아래에 낭도(郎徒)라는 이름으로 수백 혹은 수천명의 청소년 단원들이 있었다. 국선은 모범적 화랑으로 추천받아 뽑혔는데 모든 화랑들과 함께 반드시 귀족출신이 아니면 안되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낭도들은 계급을 不問했기 때문에 화랑도는 신라의 귀족사회와 평민 계급사회와의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風月徒, 風流徒라 하기도하여 하나의 교육체계로서 제도화된 화랑집단은 국가가 운영을 하였지만 국가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러개의 청소년단체이고 자유 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서 화랑집단의 우두머리인 화랑의 선출이 그 구성원들인 낭도들의 추대로 선출되는 것을 보아도 화랑집단의 성격을 알 수 있다.⁴⁰⁾ 이미 화랑의 기원을 살피면서 언급했지만 화랑단의 육성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교육과 육성의 조화로운 상호 보완관계를 말했듯이 知·德·體의 수련이 잘 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화랑단은 무엇보다도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당시 신라가 필요한 인재는 처음에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道義와 歌樂과 風流를 겸비한 花郎을 추천했으나 점차로 국가적·사회적 청소년육성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용맹함도 花郎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게 되어서 平常時에는 주로 종교적·도덕적·예술적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했으며 국가가 필요로 할 때 戰士로서

39) 상계서, p.17.

40) 손인수외, 전계서 p.34 참고. 이러한 화랑단의 구성과 성격은 우리 청소년육성에도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전국에 56개의 청소년단체들이 있고 약 270만이 넘는 청소년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들 단체의 구성과 성격 그리고 목적과 활동이 서로 달라서 국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념과 수련활동이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고 오히려 여러 중복된 성격의 기관들 사이의 비건설적 경쟁과 심지어 집단적 이기주의의 형태로까지 발전되어 청소년의 참된 육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의 인재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화랑단의 육성 내용을 잘 요약해 말하자면 『三國遺事』 3권에서 말하는 「五常六藝」와 「三師六正」, 우리 고유의 「神仙思想」 그리고 圓光法師가 가르친 「世俗五戒」로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五常」은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나 仁·義·禮·智·信을 말하고 「六藝」는 藝·樂·射·禦·書·數를 말하는 유교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고 「三師」인 戒·定·慧와 「六正」인 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知慧는 불교에서 온 사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랑단의 총단장격인 「國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화랑의 핵심사상은 仙道라고 할 수 있다.⁴¹⁾ 그것은 이미 『삼국유사』에서 道義와 歌樂·遊娛山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배달(倍達=檀)민족의 道인 神仙道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중국의 「老莊思想」으로 대표되는 道教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우리의 단군신화 속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桓雄의 아버지인 桓因은 真人 또는 仙人으로 일컬어 졌고 桓雄은 뒤를 이어 弘益人間을 건국이념으로 나라를 세운 것으로 전한다.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 神仙思想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즐기는 親자연주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고유한 道家類의 仙道を 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⁴²⁾ 이렇게 花郎團에서는 儒·佛·仙의 종교적 교리에다 事君以忠·事親以孝·交友以信·臨戰無退·殺生有擇의 「세속오계」에서 忠·孝·信·勇·仁의 德目を 가르쳤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花郎은 東洋의 큰 사상들을 함께 배우고 익힌 뛰어난 교육의 내용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뛰어난 思想을 앗아서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연 속에서 실천적으로 수련활동을 한것은 오늘날 우리 「靑少年育成」의 이념과 실천활동에 큰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花郎의 생활양식이나 교육과정이 자연 속에서 武術을 연마하고 心身을 修鍊하는 한편 審美的 生活을 통해 주로 知的인 면보다 情緒的·感性的·活動的인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⁴³⁾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도 이와같이 청소년 육성의 模範像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민족의 유

41) 만일 불교나 유교의 사상을 더 중요시 했다면 우두머리인 國仙이란 이름을 달리 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42) 김정신, “화랑도와 세속오계”, 『신라화랑연구』 중에서 p.43.

43) 손인수, 전거서, pp.37-38.

산으로 깊이 연구되어서 우리 시대에도 「청소년화랑단」과 같은 단체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대표적 시범 청소년단체로 육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자연을 遊娛하는 花郎의 風流생활과 같이 독일에서도 19세기 말에 「Wandervogel」이라는 ‘청소년 도보여행운동’이 있었는데 이는 뒤에 대대적인 「청소년운동」(Jugendbewegung)의 효시가 되었다. 독일의 「청소년운동」은 그 시초부터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조직·형성된 것부터가 이채롭다. 그 시작을 보면 1895년 Berlin의 Steglitz 김나지움(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그룹들로부터 태동하면서 1899년 19세의 K.Fischer가 中世 학생들의 流浪修學을 본보기로 이 「Wandervogel」을 주도하면서 1901년 정식으로 성인들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Wandervogel」⁴⁴⁾(학생 도보여행 위원회) 단체가 발족되었다. 또한 이 「Wandervogel」이 청소년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회원들의 대부분이 중산층 청소년들이었다는 점이다.⁴⁵⁾ 「Wandervogel」이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그 당시 산업혁명의 深化 속에서 대도시의 시민생활에 대한 불만과 문화비평이 대다수의 중산층 시민과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심한 경쟁적 개인주의적 대도시 생활에 대한 불만과 문화비판이 이러한 대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합해진자들과 함께 자기들만의 공동의 여행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였다. 또한 가능한한 복잡한 기계문명을 벗어나 울창한 대자연속으로 들어가 자유로운 하늘 밑에서 밤을 보내고 싶은 단순한 자연적 삶을 그리는 낭만적 충동을 갖게 함으로 점차 대중속으로 확산된 것이다. 다른 한편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운동이 사회의 저명한 교육자와 지도자들로 부터 많은 정신적 지도와 후원에 힘 입어서 인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확산된 「Wandervogel」운동은 점차 독일고유의 전통문화와 연결되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공동사회에서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여러 프로그램들

44) 원래 ‘철새’의 의미와 ‘방랑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45) 우리나라의 일부 전통있는 청소년 단체들은 회원의 가입기준을 사회상층계급의 청소년들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청소년 단체설립의 이념이나 목적에 맞지 않고 청소년들 사이에 일찍부터 위화감과 차별의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범국민적 단체로 성장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청소년과 국가를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을 운영하였는데, 예를 들면 농촌 민박, 전통음악과 가무·오락·夏至의 큰
 햇불놀이가 있는 청소년 야영소에서의 청소년들의 모임과 청소년에게 해당
 하는 심신의 수련거리들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새로운
 자신들의 世界觀을 가지면서 도보여행보고서나 정보들, 작시와 옛노래 부르
 기등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점차 철학적, 문화적, 사회비판적 글과 활동을
 하면서 부터 청소년들의 理想이 청소년 생활의 전반적인 개혁을 가져다 주
 게 된 것이다. 물론 개혁에는 다소 의견의 차이로 진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인간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러
 한 「청소년운동」은 1913년 10월 11, 12일 Kassel의 Hohen Meißner에서 그
 頂点を 이루어서 ‘자유독일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모여 “자유독일청소년(Die Freideutsche Jugend)은 자주적 결정과 책임 그리
 고 진심을 가지고 삶을 형성한다. 이러한 내부적 자유를 위하여 청소년 우리
 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전력을 다한다”라는 유명한 ‘Meißner선언’을 선
 포하게 된다.⁴⁶⁾ 청소년단체들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관한 贊反의 정치적 입장
 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많은 청소년단체의 회원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유
 선언을 환호했고 「청소년운동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제1기
 「청소년운동」라고 할 수 있는 「Wandervogel」시대가 1차세계대전을 기점
 으로 지나면서, 戰後의 청소년운동 양상은 점차 제도화와 사회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초기의 反문명적 정서와 기성세대의 생활·사고 방식을
 비판하면서 나온 ‘청소년 운동’의 理想과 생활형태들이 점차 公的인 인정과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부터 청소년운동 원래의 원동력을 잃게 된 것이
 다. 또한 민주국가의 관계속에서 모든 정당들과 이익단체들은 청소년 세대들
 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청소년운동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소수의 자율적·중립적 청소년단체들만 남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외부로부
 터의 영향은 청소년단체의 조직을 수직화·형식화하게 하였고, 遠征과 교제
 의 儀式化 등의 국가·사회적인 딱딱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만들어 마침내

46) 이 모임에서 이들 청소년들이 독일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들은 이 모임에서 지나친 애국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주적,
 자율적 행사에 국가·사회적 영향으로 부터의 간섭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만
 큼 일체 청소년의 자유를 위한 선언의 모임임을 보여주려 했다.

일부는 나치정권에 이용당하기까지 되었던 것이다. 비록 「청소년운동」은 나치정권이 들어서면서 멈추어졌지만 이 운동은 다른 중요한 범국민적 운동인, 당시의 「여성운동」, 「노동자운동」, 「국민교육운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운동이 결국 독일전체의 사회개혁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의 이념과 활동은 당시 독일교육의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에도 많은 비판과 개혁을 가져다 주어서 여러 시범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1920년대의 「노동교실운동」, 「예술교육운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뒤에 오는 성인교육과 교사교육, 사회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특히 敎育과 育成의 양쪽 부분에 “청소년은 청소년이 이 끌어야 한다”라는 구호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주성을 대표했으며 “청소년을 가진자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범 국민적인 구호로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던 것이다.⁴⁷⁾

지금까지의 독일에서 있었던 「청소년운동」의 고찰은 우리의 「花郎」에 관한 비교고찰과 더불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화랑」과 「청소년운동」에는 육성에 대한 중요함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도화된 학교교육을 벗어나 생활과 자연 속에서 청소년의 全人的 성장에 중요한 知·德·體를 수련하는 것은 우리의 「화랑」이나 서양 독일의 「청소년운동」의 내용에서나 모든 청소년과 국민이 즐겁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⁸⁾

47) 우리도 여기서 범국민적인 “청소년운동”을 모태로 해서 사회전체의 개혁을 청소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필요와 가치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48) 일본도 일찌기 奈良時代(710-781)에는 私塾에서는 서민의 자제를 가르쳤으나 주로 기능적 기술적인 것이 많았고 육성적 교육은 행해지지 않았고 귀족들은 國學의 學校외에도 개인교수를 통해 학교의 수업을 받았다. 平安時代(794-1192)에 와서는 세력있는 씨족들이 여러 사립학교를 세웠으나 가장 특이한 私學은 僧 空海가 개설한 ‘綜藝 種智院’이었는데 공해는 佛敎와 儒學 학과의 儒佛二敎의 本意를 전달하며 특히 최초로 知的敎育 뿐만아니라 德의 育成에도 힘을 썼던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육성의 기관도 종교교육적 차원을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의 화랑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부족하다. 신용국 역, 『일본교육사』 (서울:교육출판사, 1994), p.29.

VI. 21世紀를 맞는 敎育과 育成 - 未來의 展望

우리는 흔히 敎育과 敎育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원예가와 조각가에 비유해서 말을 한다. 이 비유는 敎育이란 한편 화초와 같이 완전한 생명체를 잘 자라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 토양과 비료와 일조량 그리고 물의 공급을 조절해 주며 또한 해충으로 부터 보호해 주고 잘못자란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이며, 敎育자의 역할은 바로 원예가와 같이 아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보호하여 주며,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 敎育이란 조각가가 돌을 조각하듯이 예술적으로 완전치 못한 재료(돌)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이상적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敎育자의 역할은 J.Locke가 말한것 처럼 어린아이의 白紙와 같은 영혼(*tabula rasa*)에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적 지식을 선별해서 쌓게 하므로 완성된 인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지금까지 계속 대립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이 둘의 의미를 함께 敎育의 개념으로 수용하는자들도 많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찰한 敎育과 育成의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시대의 敎育은 조각가 앞에 놓여진 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은 그들의 意思와 感性에 관계없이 정치조각가, 경제조각가, 이데올로기 조각가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각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우리 정치가, 경제가, 이념가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조각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 소위 “세계화”의 기치와 함께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준비의 핵심적 역할을 그 무엇보다도 敎育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가 만일 경제성장을 통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끼어든다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이해한다면 큰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이해의 바탕위에서는 ‘세계화 인간’을 조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기 영어敎育을 시켜야하고, 조기 입학을 허용하고, 학원과 과외敎育을 받아야하며, 자원아닌 타원봉사를 해야 하며, 의미도 모르는 헌혈을 하고, 귀족적 사립고등학교를 만들며, 무전기로

대학학과를 선택하며, 공부, 공부 소리를 피하여 마약을 하며, 심지어 자살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과학적 지식으로 또한 그로 인한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를 위한 과학화는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한다. 老子도 일찌기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民之難治, 以其多智. 故以智治國, 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이라고 하여 “도를 좋하게 행하는 자는 백성을 알게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는데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적이요 그러지 아니하면 국가의 복이 된다”고 말하였다.⁴⁹⁾ 우리는 21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냉철한 思考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맹목적인 자본주의 경쟁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속화하고있는 이 시기에 “세계화”, “세계인”을 부르짖는 우리 지구촌 안에서는 한편에서는 1분에 약 25명이, 1년에 약 1,300만명의 대부분 어린이와 여자인 지구촌 식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편 우리나라만도 1년에 7조원이 넘는 먹다남은 음식이 버려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과학적 지식을 도구로한 자연의 수탈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 오존층의 파괴, 기상변동 등으로 세계인류 전체에게 엄청난 재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 또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이 기계화되어 새로운 스펡크스의 출현을 맞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다.

우리에게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학과 기술이 아니요 그에 관한 지식 또한 아니다. 우리에게 세계화를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人性”이다. 이러한 人性을 우리는 21세기를 맞는 이 시기에 育成과 교육의 조화된 상호 보완관계에서 기대하여야 한다.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원예가의 마음과 행동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미래의 올바른 세계화의 주역으로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청소년들이 생활과 자연 속에서 마음껏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49) 金敬琢 역주, 『新譯 老子』(서울:현암사, 1987), pp.263-265, 譯者는 덧붙여 “(...)백성들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스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식에만 너무 치중하면 사람의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인위적인 지식과 기계가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된다”고 해설하였다.

준비하여야 하겠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을 개혁하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의 교류와 제도의 보강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준비이며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바른 人性의 育成”을 통하여 세계화를 계획하고, 과학과 기술로 이룩한 모든 결과를 좋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배운 모든 우리의 지식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과 자연을 해하지 않는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에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선택하여 가르치고 배울수 있는 「教育哲學」이 필요하며 또한 이렇게 잘 선택하여 배워진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워 자라게 하는 「育成哲學」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청소년은 바른 教育과 育成의 토양에서 푸르게 자라날 수 있는 나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청소년을 향한 理想은 “높이 나는 새는 추락한다”는 현실적 논리에만 잠식되고 있고 자포자기적 양자택일로 강요되고 있다. 새는 새이어야한다. 우리가 청소년들 원래의 밝고 푸르른 얼굴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책임이요 사명이다.

<별첨 1>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의 본질적 차이와 관계

구 분	청 소 년 교 육	청 소 년 육 성																														
헌법의 근거	헌법 제 31 조	헌법 제 34 조																														
대 상	학 생 <table border="1"> <tr> <td>국교생</td><td>중학생</td><td>고교생</td></tr> <tr> <td>4,869</td><td>2,276</td><td>2,284</td></tr> <tr> <td>대학생</td><td>계</td><td></td></tr> <tr> <td>1,012</td><td>10,441</td><td></td></tr> </table>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4,869	2,276	2,284	대학생	계		1,012	10,441		전체청소년 *()는 %임 <table border="1"> <tr> <td>학 생</td><td>근 로</td><td>복 무</td></tr> <tr> <td>8,440</td><td>2,380</td><td>2,240</td></tr> <tr> <td>(62)</td><td>(17)</td><td>(17)</td></tr> <tr> <td>1,012</td><td>10,441</td><td></td></tr> <tr> <td>무 직</td><td>계</td><td></td></tr> <tr> <td>580(4)</td><td>13,640</td><td></td></tr> </table> * 학생청소년(9-24세, 국4-대4): 학생중 국1-3년생 200만명제외	학 생	근 로	복 무	8,440	2,380	2,240	(62)	(17)	(17)	1,012	10,441		무 직	계		580(4)	13,640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4,869	2,276	2,284																														
대학생	계																															
1,012	10,441																															
학 생	근 로	복 무																														
8,440	2,380	2,240																														
(62)	(17)	(17)																														
1,012	10,441																															
무 직	계																															
580(4)	13,640																															
청 소 년 활동내용	학 업 활 동 (교과과정에 의해 학문을 수학하는 활동과 이를 바탕 으로 한 부분적인 특별활동)	수 련 활 동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청 소 년 활동목표	학업활동을 통한 충분한 지 식과 정보습득 및 기초적인 덕성·체력함양	수련활동을 통한 충분한 덕성과 체력 함양																														
활동수단	암 기 · 이 해	체 험 · 숙 달																														
활동무대	학 교 중 심	사회와 자연중심																														
참여방법	교과과정에 의해 정해진 학습과목과 시간에 따라 획일적 · 타율적으로 참여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수련활동에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																														
지도자형태	과목별 전문교사 위주	포괄적 지도자 및 기능적 지도자 위주(* 상담의 경우)																														

<별첨 2>

청소년 교육과 육성의 상호관계

구 분	청 소 년 교 육	청 소 년 육 성
일반관념	○ 교육만능적 사고 팽배 - 교육자 : 자기 몫을 다하고도 모든 청소년 문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음 - 학부모 :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은 기피함 - 사회인 : 청소년문제만 제기 되면 교육부문을 비난함	○ 전반적인 인식 결여 - 육성여건 : 제반 수련활동 여건이 황무지인 상태로 방치되어 온 실정임 - 교육부문에서 청소년들을 수련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없었으며, 추진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었음
법률체계	헌법(31조) 및 교육법, 교육세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립학교설치령,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등 완비	헌법(제34조)이념을 구현하는 법체계 미비 * 청소년기본법 발효(93. 1.)
업무체계	○ 제도적으로 체계화 - 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 지방행정기관 : 교육청 - 일선집행기관 : 각급학교	○ 제도적으로 비체계화 - 중앙행정기관 : 문화체육부 - 지방행정기관 : 내무부 (도의 가정복지국청소년과, 군의 청소년계는 “도”의 내무국산하) - 일선집행기관 : 청소년단체 · 시설법인 등 지극히 미약
시 설	전국 10,727개 학교	○ 육성요건을 갖춘 자연권 수련장 위주 - 전국적으로 363개소에 불과 * 일본의 1/35, 독일의 1/70
예 산 (정부예산기준)	24% ('92정부총예산 33조원중 8조원)	0.1% ('92정부총예산 33조원중 350억원)
*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얽매어 압박감과 불안감속에 생활		

參 考 文 獻

I. 國 內 文 獻

1. 著 書

- 1) 金敬琢 역주, 新譯 老子, 서울 : 현암사, 1987.
- 2) 도광순 역주, 新譯 論語, 서울 : 문예출판사, 1987.
- 3) 문용린,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젊은이를 위하여, 민주이념발전위원회, 1990
- 3) 손인수, 율곡의 교육사상, 서울 : 박영문고, 1986.
- 4) 손인수의, 한국교육사, 서울 : 교육출판사, 1985.
- 5) 신용국 역, 일본교육사, 서울 : 교육출판사, 1994.
- 6) Platon, 국가, 352d, 420b 이하 참고, 「세계의 대사상」 전집, 서울 : 휘문출판사, 1972.
- 7) 오인택, 고대그리스 교육사상, 서울 : 종로서적, 1994.
- 8) M. Weber, 이상를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서울 : 문예출판사, 1994.
- 9) 이형행, 교육학개론, 서울 : 양서원, 1988.
- 10) 차경수, 교육학 개론, 서울 : 학연사, 1991.

2. 論 文

- 1) 오인성, “청소년 행정의 변천과 발전방향”, 「청소년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광복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 2) 조영승, “청소년육성의 이념”, 「1급 청소년지도사과정 연수교재 II」,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 3) 이도학, “신라화랑도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검토”, 「신라화랑연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4) 김정신, “화랑도와 세속오계”, 「신라화랑연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3. 其 他

- 1)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업무현황보고서, 1996. 1. 17.
- 2) 문화체육부, 청소년 기본법령집, 1995. 4.
- 3) 한국청소년개발원, 靑少年育成靑書(총론편)-21세기 주인공 우리 청소년
어떻게 이끌 것인가? 1995. 12.
- 4) 國立オリンピック記念靑少年総合センタ, 教育施設職員の手引き, 1995.

II. 外 國 文 獻

- 1) Hofstätter,P.R., Fieber und Heil in der Jugendbewegung, in: H.von Henting u.a., Jugend in der Gesellschaft - Ein Symposion, München : 1975.
- 2) Fetscher,I., Rousseaus politische 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 1981.
- 3) Lyotard,J.-F., Das Postmoderne Wissen, Böhlau : 1986.
- 4) Rousseau,J.-J., Emil oder über die Erziehung, Paderborn/München/Wien/Zürich : 1983
- 5) Scheler,M., Die Formen des Wissens und die Bildung, in: M.Scheler, Späte Schriften, Gesammelte Werke Bd.9, Bern und München : 1976.
- 6) Stephan,D., Jugendarbeit, in: Pädagogische Arbeitsfelder - Einrichtungen, Aufgaben, Möglichkeiten, Hamburg : 1981.

Abstract

The Meaning and the Relation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for Youth

- With the Theme about the Meaning and the Content of the Youth
Development -

Cho, Young-Seung※)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meaning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in between. Definitions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are examined. By examining the etymological difference of education in the history of the east and the west, this paper reveals that the concept of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and be defined differently today from our past. With this clea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in education, the concept of development can be examined. Development has been considered a part of education and has been understood and examined partially. Thus, its importance has not been properly recognized. This paper tries to realize the true meaning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and their relationship by separating development, which has the meaning of active education in relation to human nature, from education, which is the passive learning of the scientific knowledge in modern education.

To concretely deal with the theme, a close examination of education in our era and a full investigation of the function of school are made first. An overemphasis of knowledge in education during the

※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post-capitalistic era will be discussed under a perspective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The real functions of school education, such as qualification, selection, legitimation and integration, are known to reproduce the problems which existed between the school system and society. With the historically changed education and with the social relationship, the importance of the need for development is emphasized. In other words, since the modern education can not be fully realized the original idea of education, which is the harmony of knowledge, virtue, and body, the separation between education and development is inevitable. Also, the exercise of body and mind in nature and the life outside of school are necessary and essential to our future society. The main subject of development is the youth, and thus the success and the failure of the youth development policy will determine the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uture welfare society and the free democratic country.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for the mutual supporting theory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are emphasized. Also, the execution of the mutual supporting policy instead of the education-oriented policy is emphasized. The fact that education and development should be harmonized is proved historically by comparing and examining(investigating) our "Hwa-Rang" system Shilla dynasty in Korea and the "Youth movement" of Germany.

Now, as we are getting ready for the 21st century, we should not only head for the acquisition of the scientific knowledge but we should make our experience of learning, teaching, and growing up to be a fun and happy process. And, our realization will consequently change to build the healthy human nature. As the conclusion, I emphasize once again that these can not be reached unless we realize the true meaning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Furthermore, we shoul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development to be mutually supportive, and should practice and develop this relationship.

1996년도 1급 청소년지도사과정 연수교재

연구보고 : 96-03 - 21세기 우리 청소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

1996년 10월 1일 인쇄

1996년 10월 4일 발행

발행인 조 영 승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제21-500호('93. 10. 23)등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전화 : 578-7924-8 FAX : 578-3985

인쇄처 문 영 사

ISBN 89-7816-103-0
